

CREATION TRUTH



빙하시대시리즈(5)

Bishop화산폭발의 분화구인 Long Valley Caldera. 분화구 직경이 32Km에 달한다. 호수와 집들이 있는 낮은 곳이 분화구이다.



빙하시대를 이끌었던

실제 화산활동

이전 호에서는 빙하시대를 이끌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다루었다. 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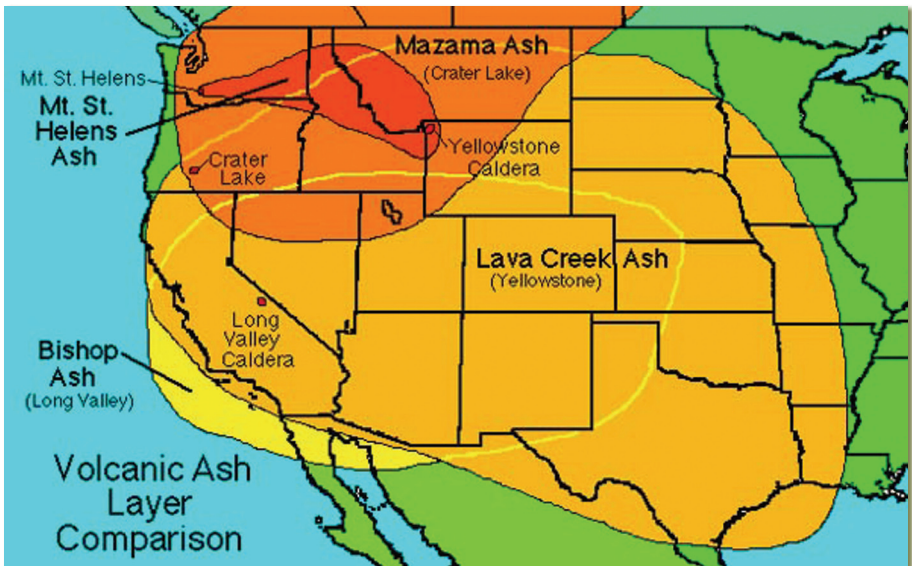
- 1) 눈을 만들 수 있는 차가운 기온,
- 2) 쌓인 눈을 유지시킬 수 있는 선선한 여름,
- 3) 다량의 증발을 일으킬 수 있는 따뜻한 대양이다.

계속해서 이 글에서는 1)과 2) 조건을 다루고 있는데, 두 조건 모두 낮은 기온을 일으키고 유지 한다는 점에서 함께 취급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가장 높은 가능성으로 화산활동을 꼽았다. 그렇다면 과연 빙하시대를 이끌 정도의 대규모 화산활동의 실제 증거들이

있을까? 여기서는 지구상에 있는 그 실제적으로 쏘히는 증거들을 보고자 한다.

빙하시대와 화산활동이 서로 연관이 되었다는 직접적 증거들이 풍부하게 있다. 그린란드와 남극대륙에서 얻어진 얼음코어들은 풍부한 화산재와 이 화산에서 얻어진 산성 물질을 포함하고 있다. 이 하나만으로 빙하시대가 화산활동과 관련되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때 대기 중에 떠 있는 화산재와 먼지들은 대기 중에 오랫동안 존재하면서 태양빛을 차단하여 당시의 대기를 차갑게 만들었으며, 여름에도 영향을 주어 선선한 기온을 유지시켰을 것이다. 그리고 이 저온의 여름은 그 전 해 쌓인 눈을 다음 겨울까지 남아있게 하여 눈이 계속해서 쌓이도록 했을 것이다.

지질학자들은 그 동안 어떤 분화구에서 분출했던 화산재가 어디까지 날아가



빙하시대를 이끌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북미의 화산활동들

서 쌓였는지를 화산성 퇴적암(화산재가 쌓여서 굳은 퇴적암)을 통해 추적해왔다. 특히 북미 지역은 어떤 곳보다 자세히 연구되어왔다. 그 가운데 아래 북미지도에서 보여주는 화산재는 오늘날 경험할 수 없는 넓은 지역을 덮었던 화산활동이 있었음을 짐작케 한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중부의 비숍(Bishop)지역에 분화구가 있는 Long Valley Caldera는 태평양 연안에서부터 캔사스주와 텍사스주까지 분포하고 있다(이를 Bishop 화산재라고 부른다). 옐로우스톤 국립공원에 분화구가 있는 화산재는 캘리포니아 연안에서부터 루이지애나주까지 가장 광활하게 분포한다(이를 Lava Creek과 Huckleberry Ridge 화산재)라고 부른다. 또한 오레곤주의 Crater Lake가 분화구인 화산재는 오레곤주와 워싱턴

주로부터 캐나다까지 분포한다(이를 Mazama 화산재라고 부른다). 지질학자들은 이들이 지도와 같이 넓은 지역에 분포했다는 것을 알았으며, 야외에서 조사한 바로는 이들의 폭발 순서도 Bishop, Lava Creek, Mazama 화산재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의 화산폭발 중에 옐로우스톤 화산이 가장 큰 규모로 보이는데 1980년에 폭발했던 세인트 헬렌 산(Mount St. Helens)의 것보다 2,000배 이상의 규모의 슈퍼화산이다. Bishop 폭발은 상대적으로 작지만 600배 가량되는 규모이다. 만약 이런 화산이 연이어 폭발했다면 충분히 대기의 기온을 낮출 수 있는 규모의 화산활동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창조과학의 지질학자들은 이들 세 개의 화산폭발이 빙하시대의 빙하시대를 이끌었던 주된 화산활동 중에 세 개였을 것으로 추정한다. 또한 전 지구상에 이런 화산폭발이 다른 곳에서도 연이어 일어났다면 전 지구적으로 기온을 내려가게 했을 것이다.

그러면 위의 화산폭발이 노아홍수와 연이어 발생했다는 근거는 있는가? 이는 야외에서의 증거들을 통해 쉽게 확인될 수 있다. 현재 지구상의 산과 지형들은 전 지구를 덮었던 물이 바다로 물러가는 노아홍수 후기에 형성된 것들로 볼 때, 위의 화산재들은 이들 산과 지형 위를 덮고 있다는 점은 기존의 모든 지형이 이미 형성된 이후에 일어난 화산활동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실제로 지질학자들은 위의 세 화산활동이 진화론적 지질학적 연대로도 아주 최근의 것으로 말하고 있는데, 바로 이와 같은 지형과 화산재의 관계에서 얻어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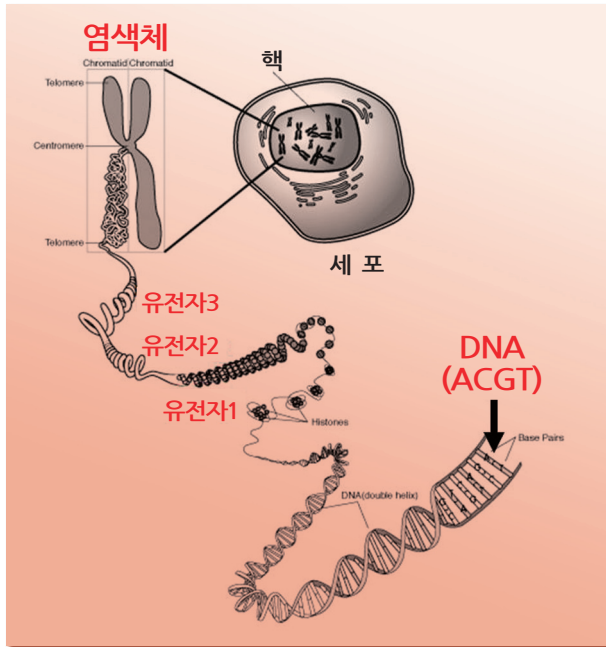
창조과학선교회에서 진행하는 빙하시대 탐사여행에서 위의 증거들 가운데 첫 번째 폭발한 Bishop 화산재와 그 분화구였던 Long Valley Caldera를 직접 볼 수 있다. Bishop 화산재의 두께와 규모, 그리고 직경이 32km나 되는 분화구를 직접 봄으로 당시의 엄청난 규모의 폭발을 그려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빙하시대의 해빙기 때 분화구에 갇혔던 엄청난 양의 물이 터져서 만들어진 Owens River 협곡을 볼 수 있다. Owens River 협곡은 캘리포니아의 그랜드캐년이라고 불리는 곳으로, 폭이 200m 밖에 되지 않지만 깊이가 130m나 된 전형적인 좁은 협곡이다. 아울러 이때 터져 나온 물과 얼음으로 인해 기존 노아홍수 말기에 형성되었던 계곡이 넓게 확장된 Owens Valley을 통해서도 빙하시대 말기의 현장을 생생히 확인할 수 있다.



이재만 부회장
지질학, 과학교육학

6월 빙하시대 탐사여행 모집

- 일정: 2010년 6월 10일(목) - 12일(토)
- 출발장소: 10일 오전 10시 - 창조과학선교회 사무실
- 인도: 이재만 (창조과학 선교회 부회장)
- 참가비: \$310.00 (호텔, 식사, 입장료, 강사비를 포함한 모든 경비)



세포 속에서 보이는 창조주 하나님 (1)

하나님 형상의 정보 체계 비교

이 세상

에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체들 외에는 다른 종류의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 생명체들은 식물이나 동물이나 사람이나 가릴 것 없이 모두 다 같은 언어로 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바로 DNA라는 것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DNA란 생체 정보의 구성 요소로서 사람이 만든 문자 정보 체계에서 글자에 해당한다(위 그림). 생명체들은 4 가지(a, t, c, g) 글자만을 가지고 있는데 그 4 가지 글자(DNA)를 한 줄로 연결하는 방법으로 모든 생명체들의 정보가 기록된다(오른쪽 그림). 그 정보에 따라 대장균과 같은 단세포 생물도 되고, 물고기도 되고, 개구리도 되고, 날아 다니는 독수리도 되고, 창조주와 아주 비슷한 정보 체계를 사용하는 사람도 된다. 글자들이 모여 한 문장을 이루듯이 일렬로 늘어 선 DNA는 유전자를 이루고(두 그림 참조), 수많은 문장들이 한 권의 책을 이루듯이 수많은 유전자들이 모여서 염색체란 덩어리를 만들고(위 그림), 여러 권의 책이 모여 한 벌의 책을 구성할 때 한 질이라고 부르듯이 여러 개의 염색체 한 벌을 게놈(genome)이라고 부른다. 이 얼마나 신기한 조화인가!

피조물들 중에 하나님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존재는 사람이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다. 성경은 창조자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하나님의 형상이 무슨 뜻인지를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성경 구절은 누가복음 3장 38절이다. “그 이상(아버지)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 더 설명할 필요도 없는 누구나 쉽고 확실하게 알 수 있는 표

현이다. 아들은 아버지를 닮는다.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하나님처럼 한 일이 한 가지 있는데 지금 당신이 읽고 있는 문자 체계를 만든 것이다.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문자들은 사람이 만든 정보 체계다. 그런데 이 문자 정보 체계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체 정보 체계와 아주 흡사하다. 물론 그 수준에는 현저한 차이가 있지만 말이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한글 체계는 자음 14 가지와 모음 10 가지 그리고 공백 한 개를 일렬로 늘어 놓은 것이다. 이 25 개의 구성 요소를 가지고 얼마든지 많은 정보를 기록할 수 있다. 영어의 경우는 27 개의 구성 요소로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기록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수도 있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을 짓는 설명서를 기록할 수도 있고, 집에 배달되면 즉각 쓰레기 통에 넣어버릴

광고지의 문구들을 기록할 수도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정 보는 전 세계 도서관과 가정들에 산재해 있다. 그런데 이 정보 체계가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생체 정보 체계(DNA)와 놀랄 만큼 흡사한 것이다.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이 생명체에 보관하고 있는 정보체계에 대해

1 ctcgaggggc ctagacatt g ccctccagag agagcaccca acacctcca ggcttgaccg 61 gccagggtgt ccccttcta ccttgagag agcagcccca g ggcatcctg caggggggtgc 121 tgggacacca gctggcctt c aaggtctctg cctccctcca g ccacccac tacacgtgc 181 tgggatcctg gatctcagc t ccctggccga caacactggc aaactctac tcatccacga 241 aggccctcct gggcatgg tg gtccttcca gcctggcagt ctgttctca cacacctgt	1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3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4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5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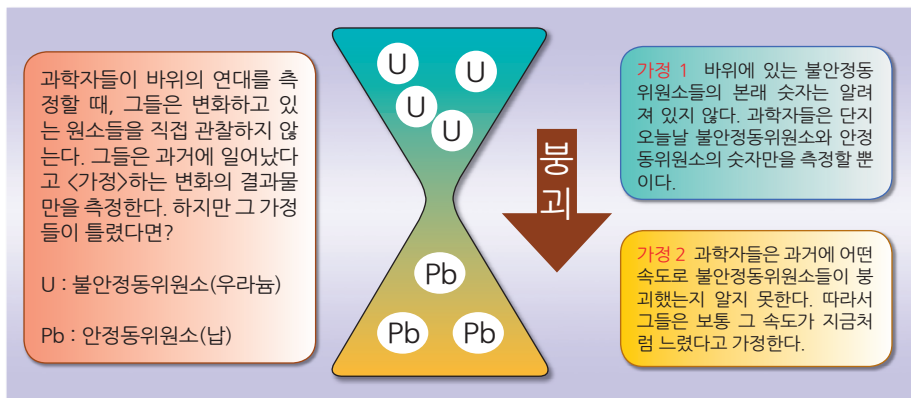
4044 개의 DNA로 구성 된 사람 인슐린 유전자의 일부와 창세기 1 장의 일부

알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아주 유사한 방법을 통해 자기의 창조적인 생각과 행위를 문자로 기록하였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란 성경의 표현이 실감나지 않는가?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라는 명령이 정말 많이 나온다. 영생을 얻으려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은 그 분께서 하신 일들을 통하지 않고는 방법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그 분은 태초의 창조에서 시작하여 지금까지 이 피조 세계를 통하여 우리 사람들이 보고, 듣고, 느껴서 자신을 알도록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원래 과학(science)이란 바로 그 창조주께서 하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하는 과정이었다. 사상가였던 Joseph Joubert(1754-1824)는 이렇게 말했다. “진리의 빛 안에서, 즉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과학들을 탐구하라. 그들(과학)의 임무는 진리를 보여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다고 믿을 수 없는 것은 쓰지도, 말하지도, 생각하지도 말라!”



최우성 박사
생리학



성경적 세계관을 담대히 선포하기 위해 모든 창조론자들이 알아야 할 **10**가지(2)

방사성 동위원소 연대 측정법 - 지구의 나이

“방사성동위원소측정법은 바위들이 수백만년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가? 아니다! 이 연대측정법은 바위들의 본래 구성물질이 어땠어야했다는 가정과 동위원소의 반감기가 과거에도 동일했다는 가정을 필요로 한다. 성경은 지구 역사가 수천년임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방사성 연대측정법의 일반적인 가정들은 오류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젊은 지구와 젊은 우주(하늘)를 가르친다. 하나님은 지구의 역사에 대한 그분의 확실한 설명이 (성경에) 정확히 기록되고 보존되도록 하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지상에서의 사역 중에 지속적으로 이를 지지하셨다 (4복음서를 보라).

하나님은 문자적인 6일동안 우주를 창조하신 자세한 연대기와 아담으로부터 예수님까지 잘 연결된 족보가 성경에 기록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셨다. 따라서 우리는 지구가 약 6천 년이 되었다는 데에 전혀 의심이 없다.

성경과는 반대로, 많은 지질학자들은 방사성연대측정은 바위들이 수백만년임을 보여준다고 주장한다. 비유를 들어 보면, 우리가 어떤 시계를 정확히 읽고자 한다면 시계가 처음에 어디에 맞추어져 있었는지를 알아야 한다. 예를 들어, 모래시계의 모래가 처음에 전부 왼쪽 병에 있었다는 점이 분명해야 한다. 하지만, 어떤 지질학자도 지구와 지구의

여러 바위층들이 형성되었을 때에 거기 있지 않았다. 따라서 그들은 방사성원소시계가 처음에 어디에 맞추어져 있었는지를 알 수 없다(그림 참조). (역자주: 방사성연대측정법은 바위에 함유된 여러 동위원소들의 비율로 바위의 연대를 측정한다. 그러나 그 동위원소들의 비율이 처음에 어떠한지를 확인할 방법은 없다. 단지 “이상적인 가정”을 할 뿐임을 글쓴이는 지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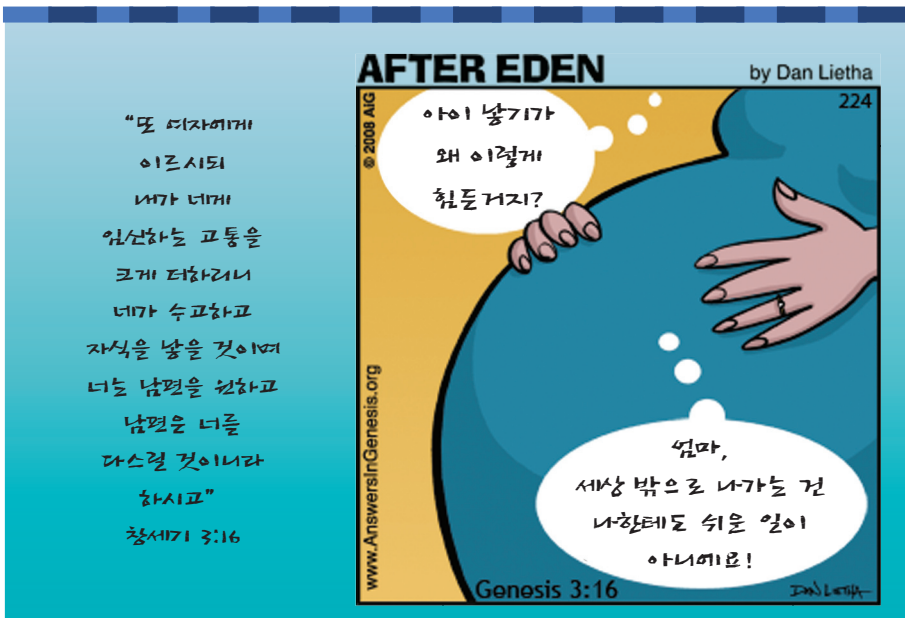
또한 모래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한 속도로 떨어진다는 점도 명확해야 한다. 하지만, 어떤 지질학자도 수백만년동안 방사성원소시계를 관찰하여 반감기가 언제나 오늘날과 같았다는 것을 확인해보지 않았다. 오히려 현재 우리는 반감기가 과거 어느 시점-예를 들면 노아 홍수 기간-에서는 상당히 짧았었다는 반박하기 힘든 증거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은 그분이 창조하신 시간을 초월하여 계신 분이다. 그분은 우리에게 그가 천지를 창조하였으며 우주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를 말해주셨다. 따라서 유한한 존재인 우리는 그분의 무오한 말씀에 기록된 짧은 지구에 대한 그분의 증언을 두려움없이 받아들여야 한다.

Andrew Snelling, Ph.D.

시드니 대학에서 지질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호주와 미국의 연구기관들에서 지질학 연구를 수행해 왔다. 현재 Answers in Genesis USA에서 연구책임자로 일하면서 많은 과학논문들을 쓰고 있다.

출처: Answers in Genesis, Answers Magazine, April-June 2010.



ACT News

탐사여행 | 창조과학학교 | 세미나

일본 Love Creation 인도

이재만 부회장은 지난 4월 6-8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4회 Love Creation을 인도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번 집회에서는 김영길 한동대학교 총장, 우사미 마사미 일본 창조과학회 설립자, 우사미 미노르 일본 창조과학회 회장 등도 세미나를 인도했습니다.

이번 집회의 가장 큰 성과는 일본 목회자와 교회가 움직였다는 점에서 기존과 차별을 둘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일본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초교회적으로 집회를 열었으나 실제로는 교회가 움직이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었습니다. 이번 4차부터 교회에서 반응과 함께 초청이 이어졌습니다. 오는 7월 요도바시 교회, 내년 3월 아키타 교회에서 세미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일본에서 교회가 움직였다는 것은 참으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결국 교회가 변해야 하며, 창조과학 사역이 교회 중심사역이라고 할 때 교회 중심의 움직임은 지금까지 Love Creation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재만 부회장은 오는 7월 고베, 오사카, 도쿄에서 열리는 5-7차 Love Creation을 연달아 인도합니다. 또한 내년 3월에는 아키타 교회를 기점으로 아오모리, 센다이, 나가노, 도쿄 순으로



Love Creation에서 강연 중인 이재만 부회장

교회 순회 세미나를 가질 예정입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진화론 교육을 시작한 일본이 진화론에서 벗어나 성경으로 돌아가는 열매들이 교회를 통해 맺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방문기간 동안 나가노 온누리교회와 동경 온누리교회에서도 세미나를 인도했습니다.

또한 오는 8월 House of Siloam을 중심으로, 그리고 9월 Love Creation을 통해 각각 일본 본토에서 미국으로 참여하는 탐사여행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한국방문

이재만 부회장은 일본에 이어 한국을 방문하여 인천 예일교회(담임목사 박상철), 양재 온누리 CEO스쿨, 종교교회 직장인 예배(최이우), 분당샘물교회(박은조), 김포전원교회(김명균), 조이

어스교회(박종렬), 춘천중앙감리교회(권오서), 한동대학교, 전주대학교, 안산동산교회 등에서 순회 세미나를 인도하고 돌아왔습니다.

6월 빙하시대 탐사여행 모집

최근 봄과 여름이 오면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빙하시대 탐사여행입니다. 요세미티를 중심으로 빙하시대의 흔적을 보며 노아홍수 후기와 바벨탑 사건, 그리고 아담 때까지의 증거를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특히 6월은 요세미티 폭포에 물이 가장 많이 떨어지는 기간이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장관을 이룹니다. 또한 일반 투어와 달리 요세미티 Valley뿐 아니라 10,000피트의 시에라 산맥을 넘는 Tioga road도 넘으며, 지질학자들의 보물이라고 하는 395번 도로의 Owens River 협곡과 화강암의 풍화 절경인 Alabama Hills도 경유합니다. 모두가 빙하시대를 이해할 수 있는 지형들입니다. 그 경관뿐 아니라 그 하나하나가 갖고 있는 의미를 발견하므로 더욱 감격스러울 것입니다. 최근 연재되고 있는 이재만 부회장의 “빙하시대 시리즈”의 내용을 눈으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 일정: 2010년 6월 10일(목) - 12일(토)
- 출발장소: 10일 오전 10시 - 창조과학선교회 사무실
- 인도: 이재만 (창조과학 선교회 부회장)
- 참가비: \$310.00 (호텔, 식사, 입장료, 강사비를 포함한 모든 경비)

2차 신학생 탐사여행

오는 6월 21-23일 2차 신학생 창조과학 탐사여행이 출발합니다. 지난 해에 이어 두 번째이며 신학생(자격은 홈페이지나 사무실로 연락바람)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ANC 온누리교회에서 후원을 해주심으로 참가비가 \$90(모든 비용 포함)입니다.

창조과학학교 소식

서부지역 제 17 기 창조과학학교가 West LA ANC 온누리교회(담임목사: 유진소, 담당목사: 한성득)에서 5월 2일 주일부터 이재만 부회장의 인류의 기원 강연을 시작으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5월 31일까지 매 주일 오후(1:30 - 4:30)에 집중 강의로 열리게 됩니다. 주소: 3840 Grand View Blvd, Los Angeles; (310)397-2741.

서부지역 제 18 기 창조과학학교가 6월 13일 - 8월 22일 (매주 일요일 오후 2:15 - 4:15)까지 작년 여름 제 14 기에 이어 ANC 온누리교회(10000 Foothill Blvd., Lake View Terrace, CA 91342)에서 열립니다. 창조과학학교는 주최하는 교회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열리는 창조과학학교에 적극적으로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무실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관 전쟁 13

사람:

꼬리없는원숭이에서 진화된 동물인가?(6)

사람을 유인원으로 바꾸기

꼬리없는원숭이와 인류 사이의 간격을 메우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사람 화석 가운데 어떤 것들은 “유인원”을 닮은 것으로 발표되어 “현대” 인류의 조상이 되었다. 이런 노력은 사람을 원숭이로 만드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유인원”이라고 주장했던 사람 화석은 보통 호모(Homo, ‘자아’라는 뜻) 속으로 분류된다. 호모 에렉투스(Homo erectus), 호모 하이델베르겐시스(Homo heidelbergensis),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Homo neanderthalensis)등이 이 부류에 속한다.

가장 잘 알려진 사람 화석은 크로마뇽인과 네안데르탈인이다. 경탄할만한 크로마뇽인의 그림들은 프랑스의 동굴 벽에서 발견되었다. 두 유인원은 분명히 사람이며 오랫동안 사람(Homo sapiens)으로 분류되었다. 그러나 최근에 네안데르탈인은 다른 종 Homo neanderthalensis로 격하되었다. 네안데르탈인이 유인원으로 강등된 이야기를 통해 진화론자들의 수단에 대해 더 잘 알게 될 것이다.

네안데르탈인은 1856년 독일 두셀도르프 근처의 네안데르 계곡에 있는 석회암 동굴에서 땅을 파던 인부들에 의해 처음 발견되었다. 그 화석 뼈들은 해부학자인 샤프하우젠 교수가 검사를 한 후 사람들이란 결론을 내렸다.

처음에 이 발견은 찰스 다윈이 1859년 종의 기원을 발표하기 전에는 별 주목을 받지 않았다. 그런데 상상 속에 있는 사람의 “유인원 같은 조상들”을 찾기 위한 탐사가 시작되고서 다윈주의자들은 네안데르탈인이 유인원같은 동물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위대한 해부학자인 버초우(Rudolph Virchow)같은 많은 다윈 비평가들은 네안데르탈인들은 구루병(곰파병)이나 관절염으로 고생한 듯 하기는 하지만 모든 면에서 사람이었다고 주장했다.

벨기에, 중국, 중앙아프리카, 북아프리카, 이라크, 체코 공화국, 헝가리, 그리스, 북서 유럽,

중동 등 세계 각국 대부분에 흩어진 네안데르탈인은 300구가 넘는다. 이 사람들의 인종은 현대 호주의 원주민들처럼 튀어나온 눈썹, 낮은 앞 이마, 좁고 긴 두개골, 앞으로 내민 위 턱, 짧고 강한 아래 턱을 가진 것 등이 특징이다. 그들은 두툼한 가슴과 큰 뼈 등의 건장한 체격을 가진 자들이었다. 그러나 그런 특징들 중 어느 것도 사람의 정상적인 해부학적 구조 범위 밖에 있지는 않았다는 것이 강조되어야 한다. 흥미롭게도 두개골의 용적에 근거하면 네안데르탈인의 뇌 크기는 현대인들의 평균보다 더 컸는데 이런 사실은 전혀 강조되지 않는다.



검은 피부와 구부정한 모습에서 하얀 피부와 금발 모습으로 유인원(?)의 티를 벗고 진화(?)하고 있는 추세다.

네안데르탈인에 대한 대부분의 오해는 프랑수아 부울(Marcelin Boule)의 주장에 기인한다. 그는 1908년 프랑스(LeMoustier와 La Chapelle-aux-Saints)에서 발견된 두 구의 네안데르탈인 해골을 연구하였다. 그는 네안데르탈인이 해부학적으로나 지능적으로 열등한 짐승들로 사람보다는 꼬리없는 원숭이에 훨씬 더 가깝다고 발표하였다. 그는 그들의 척추 배열이 원숭이 같은 구부정한 자세였고 발은 고릴라나 침팬지처럼 붙잡는 형태를 가졌다고 주장했다. 부울은 네안데르탈인이 서서 걸을 수 없었지만 어정쩡하게 걸었음에 틀림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1950년대 중반까지 이런 편견과 부정확한 관점이 많은 진화론자들

들에 의해 널리 퍼지고 더욱 부풀려지게 되었다.

1957년에 해부학자인 스트라우스와 케이브(William Straus 와 A. J. Cave)는 그 프랑스 네안데르탈인 중 하나(La Chapelle-aux-Saints)를 조사하고, 그것은 거의 100년 전에 버초우가 제안했듯이 심한 관절염으로 고생한 결과로 척추에 영향을 미쳐 구부정한 자세를 갖게 되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턱 또한 그 영향을 받았다. 이런 관찰은 네안데르탈인들이 살았던 빙하기의 기후와 일치한다. 그들은 몸을 피할 곳을 동굴에서 찾았을 것인데 궁핍한 음식물과 햇빛 부족으로 구루병 같이 뼈에 영향을 미치는 질병들을 갖게 되었을 것이다. (계속)

데이비드 멘트 / Answers in Genesis

출처: War of the Worldviews(2005)

창조와 진화: 같은 사실, 다른 해석, 그리고 믿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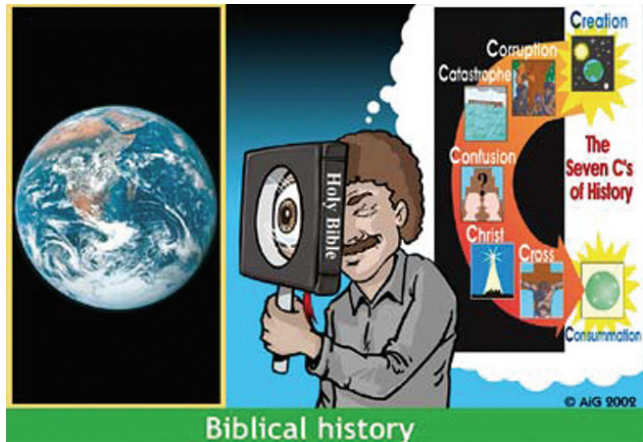
창조론

자들이 받는 비판 중 하나는 그들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과학적 발견들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 입장에서, 즉 종교적 믿음에 따라 과학적 발견들을 해석한다는 비판이다. 그러나 이 비판은 사실 모든 과학적 연구, 특히 역사과학적 연구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비판이다. 따라서 진화론에 대해서도 동일한 비판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우선 창조론이 믿음이라는 비판은 “과학적 발견은 결코 중립적인 연구자에 의해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는 중요한 과학철학적 문제를 감추고 있다.

과연 과학적 사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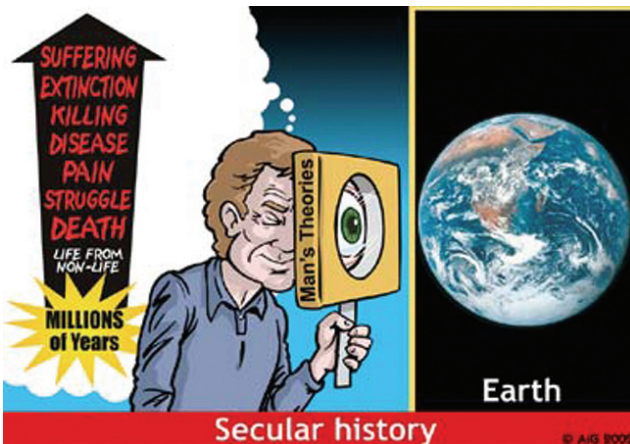
은 모든 믿음으로부터 중립적인가? 한 예를 들면, 지구의 나이를 측정하기 위한 방사성 연대측정법에는 두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다. 첫째, 이 측정법을 통해 현재 어떤 암석 표본에 남아 있는 방사성 동위원소들의 비율을 측정하는 일은 객관적이다. 예를 들면 “이 암석에는 우라늄과 납의 비율이 A 대 B이다”라고 객관적으로 말할 수 있다 (사실). 하지만, 그 측정법의 본래 목적인 암석의 연대 결정을 위해서는 두 가지 “가정”에 의존해야 한다 (본 호 6면 기사 참조). 그런데 이 가정들이 신뢰할 만하지 않다는 점이 문제이다. 어떤 과학적 발견이 특정한 “가정”에 의존하고 있는 이상, 그러한 발견은 더 이상 중립적인 연구자에 의한 발견이라고 할 수 없다. “가정”이란 간단히 말해서 “어떤 것이 사실이라고 치자”는 것인데, 이런 판단은 연구자의 관점에 좌우되기 때문이다. 둘째, 이 측



정법을 통해 측정된 암석의 나이가 측정할 때마다 너무 크게 차이가 난다는 점이다. 암석의 나이를 믿을 수 있으려면 최소한 여러 사람들이 측정한 예상 나이가 서로 비슷해야 한다. 그러나 그 나이들이 크게 다르다면 과학자는 결국 자신의 가정에 가장 잘 맞는 값을 “선택”하기 쉽다.

창조론에 대한 비판이 감추고 있는 또 다른 점은 진화론 또한 믿음에 따라 과학적 발견들을 해석한다는 점이다. 과학적 연구가 중립적이지 않다는 것은 연구자가 특정한 입장에서 연구를 시작하고 연구 결과를 해석한다는 뜻이다. 토마스 쿤은 하나의 “패러다임”에 익숙해져 있는 연구자는 자신이 무슨 입장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지 대부분 생각해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럴 경우, 연구자는 쉽게 자신의 입장이 “중립적”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진화론은 바로 그러한 패러다임 중 하나이다. 진화론 패러다임에 있는 대부분의 연구자에게 생물이 진화해왔다고 하는 것은 질문을 제기할 수 없는 가정이다. 그 연구자에게 진화는 과학적 사실인 것처럼 다루어지지만, 그 본질은 진화는 철학적 가정이라는 것이다. 창조론자들이 성경, 특히 창세기로부터 그 “가정들”을 찾듯이, 진화론자들은 물질과 생명은 스스로를 조직하여 복잡하게 진화해 왔다는 암묵적 믿음으로부터 그

“가정들”을 얻는다. 창조론과 진화론 모두 믿음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다른 점이라면 창조론은 성경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고, 진화론은 인간의 생각에 근거한 것이라는 점이다.



캔 햄은 자신의 글에서 창조냐 진

화냐의 논쟁은 어느 쪽이 객관적으로 더 나은 사실을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다. 양쪽 모두 같은 사실—그랜드캐년의 지층, 석회암 같은 암석, 공룡 화석, 다양한 생물종, 그리고 별들—을 가지고 연구한다. 모든 사실은 해석을 통해 비로소 증거가 되는 것이고, 해석은 특정한 가정들에 따라 이루어진다. 그러니 진화의 증거라고 누군가가 무엇을 보여줄 때 성경을 믿는 크리스천들이 할 일은, 그 주장에 숨어 있는 가정들이 무엇인지를 먼저 따져보는 것이다. 그러면 그 가정들이 결국 연구자의 주관적인 믿음이라는 것이 보일 것이다. 그 주관적 믿음이 성경보다 더 신뢰할만할까? (다음호에 계속)



최태현 강사
행정학

가주노회 총회(3/23 - 3/25) 탐사여행

이번 창조과학 탐사여행을 통해 그동안 몇 가지 궁금했던 것이 해결되었고 잘못 알고 있었던 노아의 세 아들의 인종에 대해 새롭게 배웠습니다. 참으로 잊지 못할 탐사여행이었으며, 항상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 이명자 선교사, 스웨덴 은혜 한인교회

이번 창조과학 탐사여행을 통해 그동안 가지고 있던 지구의 창조에 대한 많은 의문점을 해소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특히 노아홍수 시대를 기점으로 이 세상의 심판의 역사를 일목요연하고 명료하게 배우고 깨달을 수 있는 귀한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창조과학은 성경의 내용을 구체적, 실체적으로 보완하는 귀한 사역입니다. 아무쪼록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탐사여행에 참석해서 반석 같은 믿음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 박효승 선교사, 칠레

이번 창조과학 탐사여행을 통해 저 자신의 고정관념이 무엇인가?를 새로운 관점에서 생각하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탄소 측정 C14, 탄소의 함유량 등 천 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 년이라는 말씀을 통하여 성경의 연대를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해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운년 목사, C.O.R Mission Center

설득력 있는 창조과학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범 교회적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신승철 전도사, 알바인 은혜교회

말로만 듣던 창조과학 탐사여행을 직접 경험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동안 배워왔던 진화론적 사고가 얼마나 허구이며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창조와 이 세계와 우리에게 대한 사랑, 가치 등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2세대들이 이런 창조에 대한 귀한 지식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귀한 사역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셔서 진화론이 팽배한 이 교육 현실이 새롭게 하나님의 창조로 바뀌어 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 최주현, 심 하우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지구와 우주에 대한 다양한 지식으로 지금까지 불확실하고 희미하던 지층, 노아홍수, 종의 기원 등 하나님의 세심하고 위대한 창조의 손길을 보고, 듣고, 깨닫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사람이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깨닫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 김재호 목사, 샌디에고 사랑교회

귀로만 듣던 것을 눈으로 보는 확실함을 가지는 기회였습니다. 가슴 속의 전율을 어떻게 할까요? - 오상규 목사, 갈릴리 은혜교회

10여 년 전에 “과학이 성경말씀이 사실이다 라는 것을 입증할 때가 올 것이다” 라는 설교

말씀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이번 창조과학 탐사여행을 통해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 있는 것을 보고 들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온 힘을 쏟아 헌신하고 계시는 창조과학 사역자들을 보니 사도행전 29장을 써 내려가고 있는 이 시대의 예수님의 제자도를 따라가는 모습 또한 보게 됩니다.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창조과학선교회에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 조애영 집사, 갈릴리 은혜교회

이주 귀하고 중요한 사역에 헌신하시는 창조과학 사역자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더욱 더 하나님의 귀한 사역이 번창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이러한 귀한 사역이 더욱 더 확대되고 동역되어서 최소한 기독교내의 젊은 층들에게 교육의 기회가 가능한 한 많이 확대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임득춘 목사, 하늘 뜻 섬김교회

창조에 대한 계시에 대해 온전히 믿었었지만, 탐사여행과 강의를 통해서 많은 증거와 창조의 원리에 대해 깊은 이해를 얻으며,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으로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손길을 더 가까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창조과학선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성도들과 이 은혜의 기회를 앞으로 같이할 것을 위해 기도 드립니다. - 이달은 목사, 갈보리 복음교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 드립니다. 성령세례를 받고 나니 창세기 1장 1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아무리 믿지 않으려고 해도 100% 믿어졌습니다. 이번 창조과학 탐사여행을 통해 강의를 듣고 세상에서 배운 지식의 100%을 하나님을 증거하는데 사용하는 창조과학 사역자들을 존경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이임곤 목사, 팜스프링스 한인교회

왜곡된 세계관에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통하여 다시 한 번 복음의 진리가 선포되는 귀한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과학의 시작은 분명한 하나님의 창조질서 안에서만이 가능한 것을 다시 확인합니다. - 제영명 목사, 나누리교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지구와 우주에 대한 다양한 지식으로 지금까지 불확실하고 희미하던 지층, 노아홍수, 종의 기원 등 하나님의 세심하고 위대한 창조의 손길을 보고, 듣고, 깨닫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사람이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깨닫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 김재호 목사, 샌디애고 사랑교회

시간 시간 많은 것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연구하고 준비하신 많은 시간들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을 확인하지 않고도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 최홍주 목사, 에브리데이 교회

오늘날의 한국 교회, 신학교, 중고등학교에서 이러한 귀한 세미나와 자료들이 널리 알려지길 간구합니다. 세계선교의 선구자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한국교회가 앞장서서 이 귀한 진리가 전파되는데 큰 역할을 감당하길 소원하며, 특별히 창조과학선교회의 귀한 사역이 계속되길 기도합니다. - 양태철 목사, 은혜한인교회

● 지면상 다 실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위의 내용을 포함해 모든 간증은

www.HisArk.com의 "간증"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2010년 ACT Schedule

- 
- 6/2 샌디에고 커피 브레이크 (이재만, 760-728-6858), San Diego, CA
 - 6/3-5 창조과학 탐사여행 (최우성, 글로벌 선진 기독교 학교, 213-381-1390)
 - 6/4-6 포틀랜드 청년 연합집회 (이재만, 503-560-3763), OR
 - 6/6 W. LA 온누리교회 새신자(최태현), LA, CA
 - 6/6 중국 상해 온누리 교회 (김무현)
 - 6/6 코로나감사한인교회 청년부 (최우성, 213-820-4340), 코로나, CA
 - 6/7-9 창조과학 탐사여행 (오렌지 한인교회, 213-381-1390)
 - 6/10-12 빙하시대 탐사여행 (개인 모집, 213-381-1390)
 - 6/11-13 오레곤 지역 EM 청소년 세미나 (김선옥 박사), Oregon, OR
 - 6/13 수지 펠로우십 교회 (김무현)
 - 6/13 주님의 영광교회 새가족 (이재만), LA, CA
 - 6/13 창조과학학교, ANC 온누리교회 (이재만), Lake View Terrace, CA
 - 6/14-18 창조과학 탐사여행 (장로교 신학교 교수)
 - 6/20 창조과학학교, ANC 온누리교회 (이재만), Lake View Terrace, CA
 - 6/20 중국 복경 온누리 교회 세미나 (김무현)
 - 6/21-23 Fuller 신학생 탐사여행 (213-381-1390)
 - 6/24-26 빙하시대 탐사여행 (사랑의 빛 선교교회, 213-381-1390)
 - 6/27 창조과학학교, ANC 온누리교회 (이재만), Lake View Terrace, CA
 - 6/28-30 갈릴리 은혜교회 EM 창조과학 탐사여행 (213-381-1390)
 - 6/28-30 창조과학 탐사여행 (의사 그룹, 213-381-1390)
 - 7/1-3 창조과학 탐사여행 (아름다운교회, 213-381-1390)
 - 7/4 LA 온누리교회 새신자 (최우성), LA, CA
 - 7/6 고베 Love Creation (이재만), 일본
 - 7/7 오사카 Love Creation (이재만), 일본
 - 7/8-10 동경 Love Creation (이재만), 일본
 - 7/11 요도바시 교회(이재만), 동경, 일본
 - 7/11 주님의 영광교회 (이재만), LA, CA
 - 7/11 창조과학학교, ANC 온누리교회 (최우성), Lake View Terrace, CA
 - 7/11 생수의 강 선교교회 새신자반 (이재만, 562-653-0168), Cerritos, CA
 - 7/15-17 창조과학 탐사여행 (개인 모집, 213-381-1390)

● 보다 자세한 일정은 웹페이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후원 Sponsorship

창조과학 선교회는 초교파 선교단체로서 여러분의 후원으로만 운영됩니다. 창조과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기를 바라는 여러분의 관심과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재정적으로 후원을 하실 분들은 미국 비영리 단체(Nonprofit Organization)로 등록되어 있는 ACT(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로 후원금이 입금되도록 하시며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홈페이지(www.HisArk.com)를 방문하시면 온라인으로 후원이 가능합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Payable to : ACT



창조과학선교회 |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한국창조과학회 미주지부)

Mailing address | 3010 Wilshire Blvd. PMB 578, Los Angeles, CA 90010
Office Address | 1520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15
Tel. 213 381 1390 www.HisArk.com / hisark@gmail.com